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2023-2024
친교로 하나 되어



2024
09 / 29

[나해] 제2449호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소리주보QR코드



다문화 속 한가위 ▶
(암랑성당 베트남 공동체 미사)

소리주보



입당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
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민수 11,25-29

화답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제2독서 야고 5,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일입니다



5대리구청 청년청소년담당
김현구(미카엘) 신부

말씀 KEY WORD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이름으로,
ἐν ὀνόματι ὅτι Χριστοῦ ἐστε)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번역된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여 매 순간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대단한 업적이나 영웅적 희생이 아니라 이웃에게 물 한 잔 건네는 소박한 친절 안에서 우리의 주님은 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살아가시는 터전입니다.

②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이며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에서 “이주민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이라고 하시며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권고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중간 생략) 이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영원한 집을 향하여 저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가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인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인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느님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천주교 신자는 아니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는 분명 하느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소속이 아니라 사랑 실천이겠지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므로, 사랑 실천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를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랑 실천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며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신앙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뒷받침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전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희망으로 오늘 하루도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 10월 29일은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제1회기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이 제1회기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근본 소명의 일부인 시노달리타스에 대하여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교회 는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 곧 ‘이주’의 길을 걸어 나가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나그네 라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헌장 49항 참조).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는 탈출기의 성경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종살이에서 자유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여정은 주님과 궁극적 만남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여정을 예표합니다.

성경의 탈출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와 이주민의 이미지, 이 둘은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주민들은 자주 억압, 학대, 불안, 차별, 발전 기회의 부족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듯이 이주민들도 길 위에서 많은 장애물에 맞닥뜨립니다. 그들은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역경과 질병으로 낙초가 되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탈출기를 비롯하여 모든 탈출에 바탕이 되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당신 백성과 당신의 모든 자녀가 가는 길을 앞장서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점입니다. 당신 백성 가운데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은 구원 역사의 확실성입니다.

많은 이주민이 하느님을 그들의 길동무, 구원의 인도자이자 구원의 닻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하느님께 스스로를 내어 맡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느님을 찾습니다. 낙담하는 순간에도

하느님에게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느님 덕분에 그들이 가는 길마다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그들의 희망을 둡니다. 사막, 강, 바다, 모든 대륙의 국경을 건너는 이주민들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성경, 복음서, 기도서, 묵주 기도가 함께합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당신 백성 안에서 걸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역사를 통한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장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의미에서 당신 백성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생의 신비가 널리 퍼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까닭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형제자매와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이주민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와 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이며 헐벗고 병들며 감옥에 갇혀, 만남과 도움을 청하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 모임 참가자들과 함께한 미사 강론, 사크로파노, 2019.2.1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하여 봉헌된 오늘, 존엄한 삶의 여건을 찾아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여 ‘시노드 정신’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사 후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교황 (Vatican Media)

교황, 재무장 반대, 민족을 위한 평화 “인간은 피조물과 어우러지며 살아야 합니다”

2024년 9월 8일 바티칸뉴스

번역 | 이정숙

바 티 칸 소 식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8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존 기즈 경” 경기장에 모인 3만 5000명의 신자들 앞에서 연중 제23주일 삼종기도를 바치기에 앞서 재무장 반대 그리고 민족과 피조물을 위한 평화를 호소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화합과 일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 간절히 청했다.

“이 축복받은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평화가 깃들길 간절히 청합니다. 특히 아시아, 오세아니아, 태평양 사이에 있는 이 멋진 파푸아뉴기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들에게 평화가 깃들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도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재무장과 우리 공동의 집(지구)을 착취하는 행위를 거부하지만, 민족과 문화가 만나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

교황은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교회의 여정”을 성모님께 의탁하는 한편, 성모님께 기도하라고 신자들을 초대했다. 아울러 파푸아뉴기니에서 ‘마리아 헬핌’이라고 부르는 성모님께 “가족의 유대를 굳건히 해 주시고, 젊은이들의 꿈이 아름답고 용감하게 이뤄지도록 도와주시며, 노인들을 위로하시고,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길”을 기도했다.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계획, 곧 인류 대가족을 위한 평화와 정의의 계획에 따라 회심할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움을 청했다.

루르드 성모성지 홍수

끝으로 전례력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인 이날(9월 8일)을 맞아 교황은 루르드 성모성지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전했다. 교황은 루르드 성모성지가 “안타깝게도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홍수 피해 몇 시간 후 성지의 마사비엘 동굴 지역은 다시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일은 프랑스 남서부 오프레네 지역에 최근 몇 시간 동안 몰아친 강력한 악천후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한 결과로 일어났다. 지난밤 폭우로 인해 루르드 시내를 가로지르는 가브 드 포 강이 범람했다. 이에 따라 성지는 부분적으로 침수됐고, 마사비엘 동굴은 몇 시간 동안 폐쇄됐다. 밤늦은 시간에 홍수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성지의 나머지 다른 구역은 일반 대중과 순례자들에게 개방됐다.

완전히 회복된 소세 신부의 이동

2월 5일(월)

신학교의 시험 마지막 날, 로베르 신부가 마산포(馬山浦)로 갔다. 무세 신부가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고, 소세 신부는 수녀원에서 미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2월 6일(화)

얼마 전부터 장티푸스를 앓고 있는 상급 라틴어반 학생인 이 안드레아가 꽤 많은 피를 토했다. 시험은 끝났고 성적도 좋았다. 내보낸 학생도 없다. 제주도 출신의 한 신학생은 연말에 결정이 날 것이고, 기타 2, 3명은 아마 내년 에 유급할지도 모른다.

2월 12일(월)

페랑 신부가 왔다. 페랑 신부의 요청에 따라 육군성 장관과 대사와 영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프랑스의 영향력'이란 이유로 라크루와 페네 신부의 한국 귀환을 요청했다. 그리고 뫼텔 주교에게 이 교섭을 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2월 15일(목)

완전히 회복된 소세 신부가 오늘 주교관을 떠났다. 신부는 주교관에서 5일이 모자란 4개월을 지냈다.

2월 16일(금)

영사는 이달 14일 라크루 신부와 페네 신부에 대한 나의 요청을 지지하는 편지를 대사에게 보냈다고 알려왔다.

2월 20일(화)

원장수녀가 학교 수녀들에 관한 문제로 나를 찾아왔다. 끝이 없는 이야기이다. 나는 원장수녀에게 (수도회의) 규칙의 조정과 수녀들의 건강 문제를 조정해야 함을 이야기 해주었다. 아침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가야 하고 또 날씨가 나쁠 때는 언제나 학교에서 자야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의 정식 거처는 수녀원이다. 이것은 대략적인 타협안이므로 물론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뫼텔 주교는 일주일 내내 영사의 방문을 기다렸으나 헛일이었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의 교섭을 따르기로 결정짓지 못했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평화가 곧 올 것으로 생각되어 영사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다. 영사가 술선해서 또 이례적으로 서둘러서 내 청원서를 보냈다는 사실에서 그가 한 가지만을 바라고 있음을 내게 믿게 하려 했다면 나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월 21일 성회례참례

대성당에서 강론과 예절과 미사.

(재의 수요일)



†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故 양수산나 여사 선종

사도직 협조자이며 가톨릭푸름터 설립자이신 양수산나(수산나 메리 영거·Susannah Mary Younger, 향년 88세) 여사가 9월 10일(화)에 선종하셨습니다. 9월 12일(목) 오전 10시 대봉 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장례미사가 봉헌되었으며,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한국의 사도직 협조자(Auxilista)를 있게 한 초창기 멤버이자 공로 자라 할 수 있는 양수산나 여사는 1959년 12월 8일에 한국에 와서 평생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손상오 신부의 시편 성가 출간

시편성가는 미사 전례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느님 구원의 은혜에 흠숭과 찬미와 감사와 탄원으로 응답 드리는 오랜 교회 전통의 기도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손상오 신부의 시편 성가가 새롭게 다듬어 출간될 예정 이오니 전례의 거룩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입_ 40,000원 대구가톨릭음악원, (010)8581-2021 ※ 11월부터 주문 받습니다. 저작권, 복사 불허

손상오 신부 시편성가 출판기념 음악회 10월 12일(토) 오후 5시 30분 주교좌 계산대성당

교구 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미혼모 돕기 사진전 & 서양화 초대전



박영봉 안드레아 신부 사진전
봉봉 신부의 보물찾기·제주도편

10. 4(금)~16(수), 갤러리1981

이현희 베로니카 서양화초대전
가장 복되어라

10. 18(금)~30(수), 갤러리1981



문의: 가톨릭여성교육관, 254-6115 주최: 천주교대구대교구 여성위원회 ※ 전시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위하여 쓰여집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성만 이나시오 신부 (1976년 10월 3일 선종)

▶ 윤광제 다윗 신부 (2010년 10월 4일 선종)

▶ 부 클라우디오 신부 (1930년 10월 5일 선종)

▷▷ 함께 드리는 미사 안내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및 성체신심피정

10월 5일(토) 9:00 현풍성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5일(토) 10:00 월성성당



수도회 | 피정

노틀담수녀회 젊은이 기도모임

일시: 10.13(매월 둘째주) 14:00~17:00

대상: 20세~35세 미혼 여성

장소: 가톨릭 소화어린이집(상인동)

문의: (010)7634-2274

하느님 자비의 기도 월피정

일시: 10.1(화) 13:00~16:00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내용: 성시간, 유해친구, 강의, 미사

문의: 팔로티회, (010)3824-0333

추계 성령 1일 대피정

일시: 10.12(토) 10:00~18: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월막피정의집)

특강: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차량: 현대백화점-청라언덕-성서홈플-설화

명곡역, 점심, 차비무료 / (010)9045-0191

대구 예수마음기도 1일 무료피정

일정: 10.17(목) 10:00~16:00

장소: 성김대건성당(황금동)

신청: 교육수녀회, (010)9620-5603

일반 알림 | 기타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매일미사, 봉성제, 병자성사, 세례성사

장소: 대구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종교 무관

문의: 615-2141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

1차: 12.4(수) 15:00~5(목) 13:00

2차: 12.18(수) 15:00~19(목) 13:00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문의: (010)6791-0071(문자)

주님말씀 맛들이기(복음묵상)

일시: 매주 목 20:30~21:30

방법: 줌으로

대상: 만 19~35세

문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010)6715-3650

가톨릭상지대 2025년 신입생 수시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기간: 9.9(월)~10.2(수)

문의: 입학홍보처, (054)851-3021~2

<http://ipsi.csj.ac.kr>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14(월)~25(금)

전형일: 11.15(금)

전공: 오르간, 작곡(CCM작곡 포함),

합창지휘 / 문의: (02)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단기 선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온라인)

기간: 11.4~14(월~목) 19:00~21:00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비용: 10만원 / 주최: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센터 / 문의: (02)3673-2528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계좌: 국민은행 753501-01-480346

예금주: (재)천주교 유지재단

문의: (010)6680-0692

2024년 천주교대구대교구 본당사회복지의 날

일시 | 10. 19(토) 10:00~17:00

장소 | 교구청 내 성김대건기념관

대상 | 본당사회복지위원

내용 | 음악공연, 대리구별 장기자랑, 미니올림픽, 미사 등

신청 | 각 대리구 사회복지회를 통해 본당별 신청 가능

곽재혁신경과
PIYAWANG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기적의 맨발걷기 상자
365일 실내에서 편안하게~
100% 친환경
대표이사 김희정 아네스
NAVER
기적의 맨발걷기 상자 1551-2088

대한요양병원
재활전문 / 암 / 노인성질환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297(남산동)
(경북여고 건너) Tel. 053.218.8800
병원장 김 봉 일(파우스티노)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분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DOAN KIM 도안김연내과
DOAN KIM INTERNAL MEDICINE
주·야간 혈액투석 만성질환
국가 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람(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앞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만나면 티가 나는
티나스스피치컨설팅
면접 / 발표 / IR피칭 전문
안민진 크리스티나 010-3662-1176
동대구역 인근
교우 추가 무료 컨설팅 제공

서울아산내과
대표원장/전문의 박 현 진(사도요한)
건강검진센터 | 5대 암검진
위대장내시경 | 당일 용종절제
초음파 | 영양수액 | 만성질환관리
신매역 ⑤번 출구 하나은행 2층 T. 053-792-8275

청년·이직자·퇴직자
일자리 창출
조달등록 제조 기술 프랜차이즈
조합 가맹 사업
네이버 검색창에 네트워킹AV검색조합
www.network-av.com
이사장 계용수 다나일 053-782-0306, 010-4908-6478

교구 | 대리구 알림

교구 법원 공시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최종숙(안젤라)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가천성당 사무장 채용

업무: 본당 사무 전반 및 시설관리
자격: 가톨릭신자, PC활용 능숙자,
60세 미만 /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추천서
문의: (010)8501-4026

내당성당 성전복원 기념 가을축제

기간: 10.12(토)~27(일)
김종숙 요안나 도예전: 10.13(일)~27(일)
국악연주회: 10.12(토) 19:30
가톨릭남성중창단모데스트: 10.18(금) 20:00
친환경농산물장터: 10.27(일) 9:00~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2024 한티가는길 행사

일시: 10.26(토) 9:00~16:00
인원: 2천명 선착순, 1만원, 중식 포함
신청: hantigil.hanti.or.kr
주최: (사)한티(한티순교성지)

가톨릭프루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실내청소 및 환경정리
시간: 월 1~2회, 2시간(조정가능)
대상: 본당 봉사단체 및 신심단체

문의: 764-8536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직원 채용

분야: 경력 방송기자직 0명,
신입 방송기술직 0명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 참조
(www.dgcpbc.co.kr)
접수마감: 10.4(금) 17:00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후원 모집

어려운 이웃들의 무료 진료에 필요한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대구은행 069-10-003259
기부금영수증 문의: 256-9494
홈페이지: http://sungsim94.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 여,
비신자 포함 / 담당: 황대환 바오로 신부
문의: 650-4442

대구대교구 청소년 합창단 제30기

뿌에리 칸또레스 합창단원 모집

대상: 초4~초6학년
문의: (010)8581-2021

SPC 에니어그램 1단계 개강 안내

일시: 10.31(목) 10:00~12:00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영성센터
교육기간: 주1회 2시간, 총8주 16시간
내용: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내적여정

신청: 254-2664 / (010)3228-3330

전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문의: (010)3515-7555

제23회 가톨릭사진가 회원전

1차: 10.8~10.13, 교구청 내 안익사
2차: 10.15~10.20, 4대리구청 강당
문의: (010)3530-1217

가톨릭여성합창단 35주년 음악회

일시: 10.11(금) 19:30, 범어대성당
도밍고 국제콩쿨 1위 테너 김우경, 박미자 등
교구 여성합창단, 성베네딕도수녀원합창단
티켓: 유료(티켓링크) / (010)9375-2267

대구성령쇄신봉사회(반석)

청장년 성령묵상회

기간: 10.25(금) 18:00~27(일) 17:00
장소: 고령월막 성령회관 / 회비: 14만원
대상: 신앙성장을 갈망하는 청장년신자(40대)
접수: (010)7252-3040

패션오브크라이스트 20주년

재개봉 상영중 (신자 특별 프로모션)

▶ 단체(10인 이상) 대관 안내

비용: 1인 7천원

장소: 대구광장, 대구올하, 동성로,
상인, 성서, 구미공단, 울산(백화점)
문의: 롯데시네마, (010)5729-3559

달서구 보훈위탁병원 지정

수내과

원장 김건현(라파엘)

상인역 053) 642-7575
(인공신장실) 053) 642-7576

제주축재지 오겹살 전문점

보약 돈모닝 고기

건강한 고기는 보약입니다!

변 향 숙(프란체스카)

상동점 053)752-0007 | 파동직영점 053)767-1005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 중 원 (소시모)

의학박사(현 연세대 외래교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 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 (안드레아)

진료과목: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아영로 46 [신암동214-4] 2층 Tel 053 954 7582

HS 익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병의원·치과 마케팅

대표 이정환(요한)

더존보청기 오티콘 전국판매 1위

맥수면이비인후과 수면다원검사 중점

김광훈(영드레)

안과·피부과·성형외과·치과·정신과·정형외과

디딤패드 1544-4080

김 난 영 (엑스 벨)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

법무사 김 하 운 사무소

김하운(미카엘) 검찰수사관 26년 경력

교우님 무료 성실 상담, 특별우대

등기(상속,중여,부동산,법인), 고소, 법률상담

민사(소장,지급명령,답변서), 개인회생

대구 북구 원대로 91, 3층(북구청 앞)

053-355-3935 | 010-2955-3935